
저자 (Authors)	黃良秀
출처 (Source)	어문론집 17 , 1984.1, 53-64 (12 pages) The Journal of Language & Literature 17 , 1984.1, 53-64 (12 pages)
발행처 (Publisher)	중앙어문학회 The Society Of Chung-Ang Language &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59085
APA Style	黃良秀 (1984). 郷歌背景에 內包된 浪漫性 考察. 어문론집, 17, 53-6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9 16:4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鄉歌背景에 內包된 浪漫性考察

黃 良 秀*

〈目 次〉	
緒 言	III. 鄉歌에서 보는 浪漫性
I. 文化的 環境의 浪漫的 要素	1. 通俗的인 鄉歌
1. 宗教的 背景	2. 佛敎的인 鄉歌
2. 民族의 固有情緒	3. 呪術的인 鄉歌
3. 浪漫的 屬性	4. 鄉歌全般에 이르는 韓國文學性
II. 新羅詩歌의 浪漫的 要素	

緒 言

어느 나라, 어느 時代를 莫論하고 其時代의 文化는 時代의 環境과 아울러 政治 宗教의 影響을 받고 있다.

따라서, 古代로 올라 갈수록 政治와 宗教는 融合되어 있었으니, 우리 나라 新羅時代의 文化를 考察함에 있어서 固有民族性 및 其時代의 環境과 政治를 生覺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서는 精神의 支柱이며 生活原理로 되어진 宗教는 더욱 意義가 깊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古來로 恒常 中國과의 密接한 關係에서 더부러 왔을 뿐 아니라, 新羅 當時의 生活은 이러한 潮流에 휩쓸려 사는 同族—高句麗, 百濟—의 사이에서 存立해 있었으며 後期에 와서는, 이들과 겨누어 唐과 손을 잡고 이들을 屈伏시켜 新羅統一王國을 建立함에 있어서도, 비록 外勢를 迎入하였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新羅民의 自矜心을 喪失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生活環境 속에서 살아 온 韓民族으로서의 新羅가 가졌던 政治에 內包된 精神의 土壤과 그 위에 싹들은 文化的 變數를 高句麗, 百濟, 新羅 順으로 簡略하게 살피고, 이어 本旨의 新羅文化의 特色과 鄉歌 속에 깃들어 있는 浪漫的 性格을 接하려 한다.

* 博士課程

1. 文化的環境의 浪漫的 要素

文化란 人間의 現實의 生活 위에 創造 構築된 精神의 産物이다. 따라서, 文化를 考察함에는 精神의 內容이며 指導理念으로서의 宗教를 살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어 生活環境에서 必然的으로 釀造된 傳統的 民族情緒를 因하여 生活의 形象化의 이러한 斷面이 據得되어야 할 것이다.

1. 宗教의 背景

• 高句麗

元來 高句麗는 土俗의 또는 庶物崇拜의 自然神(天神) 始祖神, 雜神을 모시는 神祠와 祭壇이 있었고, 季節에 따라 國家의 行事로서 祭祀를 여는 등 民間信仰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高句麗 小獸林王 二年에 前奏의 王 符堅이 僧 順道와 같이 佛像 經文을 가져 온 때부터 새로운 文化는 눈 뜨기 始作하였던 것이며,

「五年春二月 始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弗蘭寺 以置阿道 吐海東佛之始」¹⁾

「高麗本紀云. 小獸林王即位二年壬申 乃東晉咸安三年 孝武帝即位之年也 前奏符堅遣使及僧順道 送佛經文 又四年甲戌 阿道來自晉 明年乙亥二月 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高麗佛法之始」²⁾

또한 榮留王時에 唐高祖 李淵이 高句麗와의 親善策으로 道敎가 들어 왔고,

「七年春二月 王遣使如唐請班歷 遣刑部尙書沈叔安 策王爲上柱國遼東郡公高句麗國王 命道士以天尊像及道法 往爲之講老子 王及國人聽之」³⁾

이내 繼續되어 寶藏王時에도 蘇文이 儒釋과 竝興을 위해 道敎를 말했음을 보아서, 繼續되어

「遣使入唐朝貢 三月 蘇文告王曰 三敎譬如鼎足 缺一不可 今儒釋竝興 而道敎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 伏講遣使於唐 求道敎以訓國人 大王深然之 奉表陳請 太宗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 王喜 取僧寺館之」⁴⁾

- 1)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六卷第十八 小獸林王條
- 2)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第三 順道肇麗條
- 3) 三國史記 卷第二十 高句麗本紀 第八 建武王條
- 4) 三國史記 卷第二十一 高句麗本紀 第九 寶藏王條

道敎에는 相當한 關心이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佛敎가 僧侶를 中心으로 王家貴族을 비롯하여 特權階級層의 政治의 原理로서 作用되었고 아울러 佛敎의 大衆化的 布敎를 志向하지 않은 바 아니었으나 이와는 달리, 土俗的 信仰觀 위에 急造된 佛敎의 生活은 庶民과는 어설픈 限界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자연히 그것에 못지 않게 道敎의 思想은 民間信仰과 함께 大衆의 底流에 스며들었으니, 어느 意味로는 無爲自然을 唱導한 老莊의 思想과 自然崇拜의 土俗的 信仰은 國家의 權力을 避하여 本質的으로 紳사리 親和 融合될 必要性을 갖고 있었고, 이에 佛敎에 서도 이들을 조심스럽게 迎入 許容하려는 意圖에서 七星堂 城隍堂 등을 佛境內에 設置하여 함께 祭를 드리게 하여 韓國特有한 佛敎로써 儒佛仙 調和의 素地를 열어놓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新羅民들의 固有한 精神生活에까지 影響을 크게 끼쳐 왔음을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 百濟

百濟에 있어서도 宗教에서는 이미 僧尼 寺塔이 많고, 道士가 없다고 하여

「僧尼寺塔甚多而無道士」⁵⁾

高句麗처럼 한 때나마 國策의으로 道法을 講述 布敎하였는지에 可考할 바 없으나, 近仇首王이 太子時 父王 近肖古王의 命을 받들어 高句麗國罔王斯由의 侵入을 막아 大勝을 하고, 그의 將軍莫古解로 하여금, 道家의 諫言을 聽之하고 이 말을 옳이 여겼다고 했으니

「名與身孰親 身與貨孰多 得與亡孰病 是故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⁶⁾

「近肖古王之子 先是高句麗國罔王斯由親來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 至半乞壤將戰 高句麗人斯紀本百濟人 誤傷國馬蹄 懼罪奔於彼 至是還來 告太子曰 彼師雖多 皆備數疑兵而已 其饒勇唯赤旗 若先破之 其餘不攻自潰 太子從之 進擊大敗之 追奔逐北 至於水谷城之西北 將軍莫古解諫曰 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 太子善之止焉」⁷⁾

이로 미루어 볼지라도 이미 百濟에도 道敎의 思想이 百濟民의 生活 속에 스며들어, 敎訓 信仰化되어 있어 佛敎의 國策의 指導理念에 못지 않게 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新羅

新羅의 宗教는 儒佛仙의 三敎가 融合되어 新羅固有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이것은 다시 新羅政治의 思想的 基幹이 되었음은 말할 것 없지만, 특히 道敎의 흐름이 그들의 土俗的 信仰觀과 어울

5) 周書 異域傳條

6) 老子 四十四章

7)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近仇首王條

려서 그들의 生活에 큰 影響을 미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찌기 金仁問이 老莊의 書를 읽은 바 있고,

「幼而就學 多讀儒家之書 兼涉莊老浮屠之說」⁸⁾

崔致遠이 花郎徒의 生活樣式中에 風流的인 멋을 國風으로 자랑하였다.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羣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 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⁹⁾

花郎은 美貌男子로서 곱게 粧飾하고 활개를 띄며 山川을 거느려 멋을 부리며

「遊娛山水 無遠不至」¹⁰⁾

그들을 國仙 仙郎 風流徒 風月徒라 稱함을 보아도 그들의 生活樣式中에서 道教的 影響을 짐작할 수 있다.

新羅民은 元來 樂天의이며 現實의 理想主義이며 自然主義의인 固有思想을 지니고, 外來한 모든 思想을 自己의 것으로 消化했음을 자랑할 바다.

「是則我東方之文 非宋元之文 亦非漢唐之文 而乃我國之文也 宜與歷代之文 并行於天地間 胡可泯焉而 無傳也哉」¹¹⁾

實로 新羅는 高句麗 百濟에 사이하면서도 그들로 文化를 받아들였고, 나아가 唐과의 紐帶하여 政治 宗教 文化는 勿論, 特히 道教는 큰 影響을 주었으니 詩仙 李白의 道家의 風流思想은 아무런, 直接들어올 수 있었을 것임에, 이에 剛健하면서도 活達하며 理想主義的 國家統一을 完遂한 新羅民은 이들을 吸收 助長시키어 그들 나름의 새로운 하나의 文化風土를 形成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널리 暢達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生覺해 보면 新羅代의 詩歌가 거이 逸失되어져, 남아 있는 二十五首의 鄉歌外는 그 歌名만을 여기 저기서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것만으로 新羅文化의 浪漫性이 新羅歌에 어느 정도의 反映을 갖고 있는 가를 確定하기 어려우나, 무릇 藝術이란 人間生活의 描寫이라 할 진데, 그들의 生活에서 道家의 思想과 浪漫的 性格을 發見하는 以上, 必然코 新羅文化 및 詩歌上에도 이러한

8) 三國史記 卷第四十四 列傳 第四 金仁問條

9) 三國史記 卷四 新羅本紀 第四 崔致遠 鸞郎碑序條

10) Ibid 眞興王條

11) 東文選 目錄附 東文選序

內質이 있다고 믿어져야 할 것이다.

2. 民族的 固有情緒

人間의 本來의 感情的 狀態가 激化되었을 때, 過大한 狀況에 處한 自身을 自覺하는 意志가 無力함을 느끼므로 이 內的인 狀態를 充足시키려는 慾求가 自己救出을 爲하여 靜的인 自然을 對象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現實의 生活에서 愁느냐에 따라 兩分될 수 있는 것이다.

前者는 歸自然的 生活感情에서 오는 快樂을 通하여 自己不安을 解消시키는 作用임으로 靜的이며, 東洋的이요, 其 自然에의 宗教性을 人格的으로 知覺할 때 敬畏의 感情은 宗教的 信仰과도 通來된다.

이에 對하여 後者의 經遇는 社會參與的이며 役動的이기는 하나, 그 社會의 狀況 속에서 克己를 成就시킬 때는 快樂의 일 수 있으나, 거기에서 스스로가 挫折를 가져오게 될 때, 悲觀的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러한 經遇에 오는 絶望感을 救濟하는 方法으로 歸自然은 그들의 安息處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서 우리 文化는 前者에 接近되어 왔다고 본다.

「東方의 人間은 原始의 人間과 같이 人間과 世界와의 二元論에 基한 世界恐怖 救濟慾求에서 生存하는 人間이지만 原始의 人間과 같이 二元論에 依해 混亂을 當함이 없고, 그의 特異한 世界認識에 依하여 恐怖를 尊崇에까지 높이어 混亂을 諦觀에까지 純化한다.

그러나 그 甚刻한 二元論的 世界感情 絶對的인 救濟思想은 그들의 藝術意志에 作用하여 여기에도 抽象化의 作用이 이루어져 無表現的 抽象的인 形式이 가려내어진다. 이렇게 하여 東方의 藝術은 그의 表現手段에 있어서는 原始的 藝術에 같지마는 그의 世界感情은 아주 向上成熟해 있어 技法에 있어서도 複雜化되어 있다」¹²⁾

이러하여 韓國原始宗教로서의 庶物主義의 巫俗信仰과 無爲自然의 道家的 仙教思想과 韓國의 固有民族性은 더부러 쉽게 調和를 이루어 우리 文學으로서 훌륭하게 形象化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西洋의 文藝思潮上에서의 兩分될 感傷的 또는 意志的인 浪漫主義의 要件도 必要없다. 韓國의 浪漫主義는 辨證法的 進行을 스스로가 釀造하여 왔다 할 것이다. 即 韓國民의 激化된 感情은 現實의 悲觀的 狀況에서 스스로를 無力하게 壞滅 當하지 않고 은근과 끈기로써, 그 눈물겨운 不幸을 딛고 昇華시켜 無限한 永遠으로 意志하여, 生의 樂觀的 謳歌를 塔으로 쌓아 올렸던 것이다.

「國文學은 은근과 끈기가 있다. 民族의 生活이 은근하고 끈기 있어 自然美를 觀察하는데 있어서도 은근하고 끈기 있었고, 또 그 生活이 國文學에 表現되어 여기에 은근하고 끈기 있는 文學을 낳았다」¹³⁾

우리 文學에서 別離를 노래하는 作品 가운데는, 반드시 後約이 마련되어 있음을 빼놓을 수 없다.

12) 美學 及 藝術學史 大西昇著 p. 252.

13) 趙潤濟, 國文學의 特質 國文學史 拔文條

3. 浪漫性的 屬性

浪漫主義를 西洋文藝思潮上에서 區分하면 初期의 感傷的 浪漫主義와 後期에 있는 意志的 浪漫主義와 現代的 新浪漫主義로 發展過程을 三分하여 考察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共通된 屬性은 激情的 空想的 冒險的 愛情的인 여러 意味를 갖고 있는 옛 “Romance” 英國의 騎士道의 用言이다. 그러나, 이 古典的 甘美로운 言語는 17世紀 理性哲學的 思考 속에서 虛構的 空想的 甚至於是 거짓된 것으로 그 意味가 低落되었다가¹⁴⁾ 18世紀 初葉부터 이 말은 肯定的인 面에서 意味가 單純한 感性的인 이 아닌 意志의 表露로 格上되었다.¹⁵⁾ 그리고, 이 18世紀를 前後한 浪漫主義를 大西 昇氏는 novalis의 美學的 立場을 立證하여 眞實絕對의 實在로서 哲學의 精髓라고 했다.¹⁶⁾

여기에서 우리는 新羅가 가지는 文學的 內質에서 隱見되는 浪漫性은 格調높은 其時代의 精神의 發露, 生活의 精髓임을 吟味해야 한다.

① 浪漫主義는 理性的 支配를 排擊하고 情意를 重視한다. 人間의 尊嚴性을 重視하며 擬固된 格式 學問에 捕撻가 되어 無味乾燥한 幽閉된 門을 박차고 나가려는 哀傷的인면서 薰薰한 情感的 意慾을 激動시킨다.

② 浪漫主義는 個性的인 變化를 사랑한다. 이것은 人間이 그들의 既存의 어떠한 政治, 生活의 組織 形式에서보다 創意的 發展의 變化를 사랑한다. 어느 때에, 設令 이것이 이루지 못한다 해도, 바른 意志만 堅持되면 積極性을 띄고 理想的 生活行動을 敢行한다.

③ 浪漫主義는 現實에 있어서 激烈한 抵抗意識으로 自我의 世界를 透視한다. 이러한 態度는 그 마 음한 어떠한 憧憬이 이루지 못한다 해도, 人間이 追究하는 理想性을 올바른 指導理念으로 確立시켰을 때에, 外的인 美에서보다 內的인 美化를 高揚한다.

以上の 諸點에서 新羅의 浪漫性을 考究하려 한다.

II. 新羅詩歌의 浪漫的 要素

浪漫主義라는 테두리에서 佛敎와 儒敎와 道敎를 두고 生覺해 볼 때, 道敎는 神仙思想과 結合되어 浪漫的 思想과 相通된 點이 많으며, 이 道敎思想을 新羅와 李朝末期로 區劃하여 考慮해 볼 때, 前者에서 비록, 新羅時代가 佛敎國이기는 하나, 仙敎의 影響이 많던 當時에 있어 浪漫的인 性格이 가장 두드러지다 할 것이다. 그러나, 李朝初期로부터의 道佛에 對한 彈壓政策과 崇儒를 國是로 하는 時期에 있어서, 더구나 末期의 四色當爭으로 因한 姑息의 閉鎖的인 社會 下에서의 現實逃避를 爲한 道家의 思想傾向과는 다름을 一考해야 한다. 前者가 樂觀的 進取的 開放的이라면, 後者는 感傷的 逃避的 悲觀的이라 할 수 있다.

14) Romanticism-Lilian, R. Furst 著 李相沃譯 p. 18.

15) Ibid p. 19. pp. 50-51.

16) 美學 及 藝術學史—大西昇著, p. 140.

本來 感傷主義的 浪漫性이란 結局 自家撞着으로 빠져 虛無的 自己消滅을 招來할 뿐이다. 그러므로, 本項에서는 이와는 다른 次元에서 新羅의 浪漫性을 對象으로 詳考하는 緣由가 있다.

그러면, 新羅는 分明히 高句麗의 北方的 剛直한 氣質과 百濟의 南方的인 溫柔性의 影響을 받았고, 特別히 그들은 直接 唐과도 聯盟을 맺어 이와 往來가 자랐으며, 後期의 三國統一을 이룸에 있어서는 더욱 交通이 容易해 져, 政治的 文化的 紐帶가 도타왔음은 이미 前述한 바와 같다.

「遣使入唐 奏請禮記并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并於文館詞林 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 賜之」¹⁷⁾

「以至誠事中國 梯航朝聘之使 相續不絕 常遣子弟 造朝宿衛 入學而講習 于以襲聖賢之風化 革鴻荒之俗 爲禮義之邦」¹⁸⁾

이로 미루어 보건데 我邦과 唐과의 文化的 交流로 因한 文學的 影響도 唐에서 羅朝에 미친 바 至大했음을 立證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唐代의 文豪 白樂天和 杜甫와 李白의 三者를 두고 볼 때, 아무래도 李白은 唐代를 代表하는 浪漫的 作家일 것이니, 그가 바로 道家의 生活感情에서 作品生活이 緣由되는 바 크므로 이를 미루어 보아도 李白을 높이었던 當代에 있어 道仙의 影響을 크게 입은 新羅時代를 浪漫主義的 時代¹⁹⁾ 라 區劃지어 봄이 그리 無理는 아닐 것이다.

「政和中 我朝遣尙書 李資諒入宋朝貢 臣富弼以文翰之左輔行 詣佑神館見一臺設女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貴國之神公 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乃泛海抵辰韓生子 爲海東始主帝女 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臣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東神聖母文 有振賢肇邦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 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²⁰⁾

金台俊先生도 孤雲條에서

「그가 晩年 伽倻山에 들어가 半仙半佛의 生活을 함에는 隱遁의이고도 樂天의이면서 浮世를 達觀한 隱逸詩人이었다」²¹⁾ 고

當時의 我國文章 始發揮於崔致遠²²⁾ 이라 이를만한 孤雲의 文流 風貌를 儒敎의 學習을 끝마치고

17) 三國史記 卷第八 新羅本紀 神文王條

18) Ibid, 第一二 新羅本紀 第一二 敬順王條

19) 韓國漢文學史 李家源 新羅時代의 浪漫主義條

20) 三國史記 卷第一二 新羅本紀 第一二 敬順王條

21) 朝鮮漢文學史: 金台俊 著 p. 36.

22) 慵齋叢話: 成俔

더욱 깊이 入山修道함으로 佛仙의 調和의 境地에까지 沒入되었음을 말해 줌으로 新羅의 浪漫的 文流 氣質을 端的으로 表白하고 있다.

그리고 이 時代의 漢文學의 輸入의 바탕이 된 唐이 바로 中國古代文學史上에 있어 一大文藝復興 期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唐宋八大家의 出現을 비롯하여 많은 文人이 나왔으나, 特히 李白 杜甫 白樂天의 三人鼎立은, 新羅文化의 儒佛仙調和의 現象에 미루어, 無關이 아니라 할만큼 偶然이 기도 하며, 바로 이때 中國 古詩가 形態上으로 五言 七言으로 定着되어 있었다는 全盛期라는 點에서 一考하지 않을 수 없다.

胡雲翼氏는 當時의 唐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으며,

「當時의 가장 큰 特色은 다름이 아니라 當時가 남의 것을 模倣하지 않고 또 옛에 돌아가지도 않고, 어디까지나 強烈的 創造精神에 넘치고 아울러 自由放肆한 精神을 가졌다는 點이다.

또 當代의 才氣있는 詩人은 누구나 다 제 마음에서 우러난 바를 作品에서 表現해 내놓고 또한 作家의 獨特한 個性과 氣風을 表現하고 새로운 世代의 色彩로 露出한다.」²³⁾

「李白은 지극히 熱情的인 浪漫詩人이며 또한 天才的으로 非常하게 活躍한 作家다. 그는 生覺하는 바가 豁達하고 氣魄이 雄壯하고 才氣가 넘쳤다. 따라서 그가 지은 詩는 모두가 自由奔放하고 마치 天馬가 하늘을 달리 듯하고 黃海의 江물이 天上에서 흐르는 듯 것잡을 수 없다.」²⁴⁾

車相輅教授도 杜甫를 寫實主義 作家임에 對하여 李白을 浪漫主義 作家이라고 했음은 곧 道敎를 背景하는 無爲自然的인 世界觀이 그로하여금 自由放逸한 詩人으로서 形成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무르익은 詩壇을 背景으로 飄逸한 李白의 浪漫主義와 沈鬱한 杜甫의 寫實主義가 同時에 되었다.」²⁵⁾

「李白은 老莊思想에서 享樂的이고 杜甫는 佛敎思想으로 博愛的이요, 李는 利己的이며, 杜는 利他的이다. 李는 知者로서 「바다」의 性格이요, 杜는 仁者로서 「山」의 性格이다. 人生에 對한 李白의 態度는 「夫天地者萬物之逆遊也 光陰者百代之過客也 而浮生苦夢 爲歡讎何 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春夜宴從成 桃花園序)에서 알 수 있다. 杜甫의 利他博愛精神이 나타난 詩의 一例로 「安得廣廈千萬間 大庇天下寒士俱歡顏 風雨不動安如山 嗚呼何時眼前突兀見此屋 吾廬獨破受凍死亦足」(茅屋爲秋 風所破歌) 一句를 들겠다.」²⁶⁾

그러므로, 當時의 新羅가 當面했던 國際的인 趨勢를 보아서 唐과는 不可分離한 關係에 있음에 必然的으로 新羅는 民族固有情緒와 佛敎 및 巫俗信仰 위에 이러한 影響을 받았음은 勿論이다.

그들은 넓은 平地로 에워싼 慶州를 舞臺로 山紫水明한 東海沿邊의 環境과 溫和한 氣候 속에 활개를 띄고, 粧身 美貌로 自然과 美와 健康과 自由와 理想과 사랑을 滿喫함이 無限의 기쁨이 아닐 수

23) 중국문학사 胡雲翼著 정기근譯 p. 148.

24) Ibid p. 162.

25) 中國文學史 車相輅著 p. 273.

26) Ibid p. 274.

없었다.

「三十七年春 始奉源花 初君臣 病無以知人 慾使數聚羣遊 以觀其行義 然後舉而用之 遂間美女二人 一曰南毛 一曰俊貞 聚徒三百余人 二女爭媾相妬 俊貞引南於私第 強勸酒至醉 更而投河水以殺之 俊貞伏誅 徒人失和罷散 其后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²⁷⁾

新羅는 元來 部族國家로서 하나의 聯合體의 性格을 띄고 生成하여 後에는 統一新羅王國으로 發展했다. 마치 希臘(Greek)의 都市國家의 性格을 방불케 할 것이다.

新羅 上代의 六村의 酋長選舉로 形成된 合議政治體制의 部族國家로 發展해 온 新羅는 中代以後에 있어서도 하나의 民主的 本質을 喪失하지 않고, 多分히 이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社會制度下에서는 人間의 本質은 어느 程度 自由로이 開發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吏頭 發生과 함께 우리 固有의 文藝는 定着 暢達되어질 契期를 마련했던 것이다.

現存의 鄉歌가 二五首外 若干의 歌名만이 알 수 있다고 하나, 眞成王 二年을 前後한 焉間의 新羅 鄉歌의 實情은, 三代目이 있었다는 記錄과 其他 漢詩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豊盛했으리라 본다.

「王事與角于魏弘通 至是常入 內用事 仍命與大矩和尙修集鄉歌 謂之三代目」²⁸⁾

참으로 新羅民은 好舞歌樂하는 浪漫的 性格의 所有者들로 「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함으로 自然을 사랑하고 健康美를 追求하며 現實參與에 積極的인 生活態度로 臨함과 아울러 아름다운 理想의 꿈을 實現하려는 精神面이 이 鄉歌를 因하여 端的으로 엿볼 수 있다. 果然 그들은 新興國으로서 高句麗와 百濟를 統合하고 強大한 新羅統一王國으로서 그 潑刺한 氣質은 過去의 낡은 制度 組織을 排擊 또는 改善하여 嶄新한 國策을 實現해 具體化할 수 있었다.

III. 鄉歌에서 보는 浪漫性

新羅時代가 文學의 發芽期²⁹⁾라 했지만 文學的인 面에서보다도 思潮的인 面에서는 一大 復興期 있음은 두 말할 것이 없다. 그 理由로는

- ① 我邦固有한 民族의 情緒의 發揚.
- ② 土俗的 信仰과 三教를 融合하고 形成된 韓國의 佛教觀.
- ③ 民衆 底邊에 흐른 仙教와 巫俗信仰의 調和된 生活의 意識化.
- ④ 國初始用文學²⁹⁾이었던 漢文學이 吏頭文으로 創製 整理됨으로 因하여 擬固性이 풀리어 巷言

27)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條

28) 國文學史 趙潤濟著 p.8 ①胎動 形成時代條

29) 三國史記 卷第二 高句麗本紀 第八 嬰陽王條

의 자유로운 表現의 可能性.

⑤ 唐文化 輸入

⑥ 新羅創建以來의 民主的 自主的 民族性.

위와 같은 것들은 新羅民의 身分의 高下 知識의 如何를 不問하고 創意的인 새 生活이 全般에 이르러 그들에게서 旺盛하게 表現 可能하게 되었으니 檀君聖祖 「弘益人間」³⁰⁾의 肇國理想의 追究가 이 때에 더욱 意識化 되었고, 民族自覺이 文化面에서 再興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아울러 鄉歌의 出現과 記錄은 歷史的 意味가 있다.

「第四十九憲康大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 此屋連牆無一草屋 笙歌不絕道路」³¹⁾

라 했는데, 이는 其當時 얼마나 盛市繁華하였으며 歌吹滿路했는 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 이 當時에 流行된 鄉歌에 關하여 梁柱東博士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더구나 그 作家가 우흐른 帝王 名相 國仙 名釋으로부터 아래론 庶民 戍率 婦女 娼女에 이르기까지 온갖 層을 網羅하였음은 노래가 얼마나 그들의 實生活에 普遍的으로 浸潤되었던 가를 알 수 있다」³²⁾

「詞勝歌中에 佛敎의 要素가 많은 줄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毋論 遺事의 著者가 僧侶요, 그 所述이 大概 佛敎關係임으로 一般作品은 그리 採錄치 않는 點을 考慮할 것이니, 詞勝歌가 當時에 何必 佛敎的인 內容뿐 아니라 널리 自然과 人生 戀慕 諧謔 哀怨 憧憬 達觀 諦觀等 人生百般의 機微 乃至 安民理國의 理想까지 무엇이냐 노래하지 않은 것이 없었음」³³⁾

以上으로 보아 新羅鄉歌의 內容과 範圍를 미루어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現在 二五首 鄉歌中 特히 普賢十願歌는 均如 佛心敎化 및 念願을 爲한 것으로서 制作되는 것인 만큼, 本項의 研鑽의 對象으로부터 除外하기로 하고 殘余 十四首를 土臺로 하여 剔缺함에 있어서도 또한 本遺事 記者가 僧侶임으로 多分히 그의 主觀에 依하여 潤色되어 있으리라 보고, 特히 通俗의 鄉歌와 佛敎的인 鄉歌와, 呪術的인 鄉歌로 各各 別章을 設하여 그에 內包된 浪漫性을 考察하기로 한다.

1. 通俗的인 鄉歌

(1) 鄉愁의인 詩歌

- Ⓐ 慕竹旨郎歌 …………… 得鳥
- Ⓑ 讚耆婆郎歌 …………… 忠談師
- Ⓒ 怨歌 …………… 信忠

30) 三國遺事 紀異卷第一 古朝鮮條

31) 三國遺事 卷第二 處容歌 望海寺.

32) 古歌研究 梁柱東著 序設 羅代의 歌集條 p. 32.

33) Ibid, 詞勝歌條 p. 53.

(2) 雅致的인 詩歌

獻花歌 牽牛老翁

(3) 戀愛的인 詩歌

㉠ 薯童謠 武王 薯童

㉡ 處容歌 處容

(4) 愛國的인 詩歌

㉢ 彗星歌 融天師

㉣ 安民歌 忠談師

2. 佛教的인 鄉歌

信仰的인 詩歌

㉤ 祭亡妹歌 月明師

㉥ 願往生歌 廣德妻

㉦ 禱千手觀音歌 希明

3. 呪術的인 鄉歌

(1) 奇譚的인 詩歌

愚賊歌 釋永才

(2) 勞動的인 詩歌

風謠 釋良志

(3) 神通的 詩歌

兜率歌 月明師

4. 鄉歌 全般에 이르는 韓國文學性

前述에서 國文學은 은근과 끈기³⁴⁾ 라고 했다. 바로 이는 이 民族의 文學魂이다.

「陶南先生은 韓國文學의 特質을 은근과 끈기라 했다. 이 말 속에는 內的 充實性과 持久的 未來觀이 內包되어 있다. 每事는 은근하지 않으면 無味가 없고 輕薄할 뿐이며 허울 좋은 뿐이다. 또 끈기가 없다면 確固한 未來觀이 定立되어 있다고 自處할 수 없고 最終의 美를 거둘 수 없다. 華奢하지 않고 속스러우면서도 질기고 알숙 있는 韓國文學을 일컬음이다. 이러한 內的 充實 持久的 未來觀이 깃들은 文學은 믿음(信仰) 없이 이룩될 수 없다. 韓國文學은 이에 韓國의 體質과 傳統을 深刻하게 되찾아야 한다」³⁵⁾

三國遺事에 있는 鄉歌 十四首만을 골라 이러한 屬性을 區分해 본다면

그리움 慕竹旨郎歌, 讚耆婆郎歌

한스러움 怨歌

34) 前述 ㉢ 趙潤濟: 國文學의 特質 國文學史 拔文條

35) 새시대문학 제 3 권 제 3 호, 韓國의 宗教文學(全):

- 수줍음 …………… 獻花歌
 은근함 …………… 處容歌, 愚賤歌
 사랑함 …………… 彗星歌 -(愛國的 次元으로 昇華)
 끈기 …………… 薯童謠, 風謠
 점잔음 …………… 安民歌
 미더움 …………… 祭亡妹歌, 願往生歌, 禱千手觀音歌, 兜率歌

이렇게 時代를 超越하여 우리네 詩歌들 속에 깊이 連綿하여 있는 民族的 固有情緒와 韓國文學上에 內在한 傳統的 魂이 一貫되어 潛在하여 흐르고 있는 余韻인 것이다.

以上으로 미루어 보건데, 實로 鄉歌는 當時의 既成觀念인 佛教의 影響도 많지만 그 佛教의 教化乃至 祈願과는 달리 巫俗의 韓國傳來의 民俗性 위에, 儒教的 學習을 超克한 半仙半佛³⁶⁾의 融合된 또 하나의 韓國의 새로운 世界가 鄉歌의 境地로서 存在해 있다는 것을 明示해 준다. 即, 國仙들이 自然을 통한 遊娛山水나, 生活을 因한 高雅한 性情과 元曉의 爾陀淨土에 있는 遊心安樂道³⁷⁾는 樂山樂水의 心身研磨로 昇華되는 佛道の 秘境과도 接合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上記에 區分된 各樣인 鄉歌의 要素를 超克하여, 民俗信仰化된 呪術力의 獨特한 加味와, 佛仙이 融合된 宗教思想의 內質의 豐饒함이 從前의 漢文學의 表記形式을 排除한 吏頭文字의 새로운 使用方法으로 詩의 形象을 圖謀함에서, 新羅鄉歌의 浪漫的 感興을 鼓吹시키며 韓國藝術美의 固有한 世界에로 우리를 더욱 誘導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三國遺事·三國史記·周書·老子·東文選·古今注·慵齋叢話：成俔
- 趙潤濟, 國文學史·韓國詩歌史綱
- 梁柱東, 古歌研究, 麗謠箋注
- 元 曉, 爾陀淨土
- 車相輅, 中國文學史
-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 東國大學校, 韓國文學의 思想的 研究
-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 朴晨義, 韓國文學 背景研究 上, 下
- 黃淇江, 新羅鄉歌研究
- 金東旭, 新羅鄉歌의 佛敎文學의 考察
- 金雲學, 新羅佛敎文學研究
- 金俊榮, 鄉歌詳解
- 李能和, 朝鮮道敎史
- 大西昇, 美學 及 藝術學史
- 韓國基督教文化研究院, 새시대문학
- 窪德忠, 道敎史
- 胡雲翼, 중국문학사 정기조 譯
- Romanticism, Lilian R. Furst 李相沃譯

36) 前述：朝鮮漢文學史：金台俊著 p. 36.

37) 爾陀淨土(遊心安樂道)：元曉